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　第12号（2010年）

통영(統營)의 목공예(木工藝) 관련(關聯)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고찰(考察)

須藤　護*1　朴　炫国*2

統營の木工藝関連無形文化財の考察

Study on Wood art in Tongyoung

Sudo Mamoru*1 PARK Hyun kuk*2

統営は韓国慶尚南道の閑山島に位置する木工芸の町で，伝統的木製家具と小盤（個人用の膳），螺鈿漆器の産地として韓国では最も著名な町である。本稿は，主に統営に伝承され，高度な職人技術をもって加工された木工芸を中心に，その形成過程と伝承形態に関する調査報告である。統営という地名は，朝鮮時代に勃発した壬辰の乱（豊臣秀吉の朝鮮派兵）の際に，李舜臣将軍が閑山島で豊臣軍に大勝した後1593年に忠青，全羅，慶尚の３道を統括する統制司統営を閑山島に移したことにより，当地を統営と呼ぶようになった。統営は軍事都市として成長する過程において忠武という名称が使われたこともあるが，今日では統営市と呼ばれている。当時の統営には，軍人が必要とするさまざまな生活物資や，戦時に必要な物資を作る12の工房が設置されていた。各工房で生産された軍需物資は各軍に供給され，残った物品は民間にも販売された。その後12の工房は規模が縮小され，また閉鎖された部門もあるが，当時の技術はそのまま民間に伝わり現在にいたっている。今日統営には，家具匠，小盤匠，簾匠，螺鈿漆器匠などの木工芸関連の文化財だけでなく，勝戦舞，統営五広大，豆錫匠，南海岸別神グッド，などが国や地方の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個々の機能や特性，内容，構成が独特であり，文化財としての価値は広く認められているが，これらはお互いに相補的な関係を維持しながら存続して来たものである。

Tongyoung is the most famous of the Korean traditional woodenware, furniture, small dining tables, woodenware technology, and lacquer 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This field survey is to look into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handed down in Tongyoung, and to inquire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types. In the Choson Dynasty period, the navy headquarter was located in Tongyoung. Twelve workshops supplied soldiers with the various materials during war. These workshops were established in Tongyoung. The war supplies which were produced from twelve workshops, supplied each army and the remaining materials were sold to civilians. Then, the operation of twelve workshops were reduced or closed up, but the technology has been passed on to civilians and has continued to pass on the technology till this day. Thes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recognized as the unique cultural property in their skill, characteristics, content and organization. However, these have been existing, maintaining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1. 머 리 말

한반도(韓半島) 남(南)쪽 현(現) 경상남도(慶尙南道)에 통영(統營)이 자리 잡고 있다. 통영(統營)에는 한국(韓國) 전통(傳統) 목기(木器) 가구(家具)와 소반(小盤) 등(等) 목공예

＊1 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　＊2 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

(木工(藝) 기술(技術)과 나전칠기(螺鈿漆器)로 한국(韓國)에서 가장 명성(名聲)이 높은 곳이다. 이 글에서는 통영(統營)을 중심(中心)으로 통영(統營)에서 전승(傳承)되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현지(現地) 조사(調査)하여 그 형성(形成)과 전승(傳承) 형태(形態) 등(等)에 대(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영(統營)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이 한산도(閑山島)에서 크게 승리(勝利)한 뒤 1593 년(年) 충청(忠靑), 전라(全羅), 경상(慶尙) 3 도(道)의 통제사(統制司) 통영(統營)을 한산도(閑山島)로 옮기면서 통영(統營)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통영(統營)은 군사도시(軍事都市)로 성장(成長)해 왔으며 도중(途中)에 충무시(忠武市)라는 명칭(名稱)이 사용(使用)된 적도 있지만 현재(現在)에는 통영시(統營市)라고 부른다. 조선시대(朝鮮時代) 통제사(統制司) 통영(統營)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軍人)에게 필요(必要)한 여러 가지 물자(物資)나 전쟁(戰爭) 때 필요(必要)한 물자(物資)를 만드는 12 공방(工房)을 통영(統營)에 설치(設置)하였다. 12 공방(工房)에서 생산(生産)된 군수물자(軍需物資)는 각(各) 군(軍)에 공급(供給)되고 남은 물품(物品)은 민간(民間)에 판매(販賣)되기도 했다. 그후(後) 12 공방(工房)의 운영(運營)이 축소(縮小)되거나 폐쇄(閉鎖)되었지만 당시(當時) 기술(技術)은 그대로 민간(民間)에 전(傳)해져 지금(只今)까지 이어지고 있다.[1]

통영(統營)에는 400 여(余) 년(年) 전(前)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이 수군(水軍) 통제사(統制司)를 할 때부터 12 공방(工房)을 설치(設置)해 운영(運營)했다. 이 공방(工房)에서는 주전꼴, 군사지도(軍事地圖), 말안장(鞍裝), 가죽신, 소반(小盤), 쇠손잡이나 장식(두석장, 豆錫匠) 등(等)을 만들었다. 그밖에 대나무 상자(箱子), 부채, 화살, 갓 등 은 대나무를 재료(材料)로 만드는데 이것들이 반절(半切)이나 된다. 통영(統營)에서 가장 유명(有名)한 것은 나전칠기(螺鈿漆器)이다. 통영(統營)에서 대나무를 재료(材料)로 만드는 것과 나전칠기(螺鈿漆器)가 유명(有名)한 것은 주변(周邊)의 자연(自然) 환경(環境)에 기인(起因)한다. 통영(統營)은 한반도(韓半島)의 남부(南部) 해안(海岸)에 자리 잡고 있어 바다의 따뜻한 바람의 영향(影響)으로 사철 온화(溫和)한 기후(氣候)가 조성(造成)되어 대나무 성장(成長)에 적합(適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잡히는 질 좋은 조개껍질 즉 나전(螺鈿)의 원료(原料)가 되는 전복(全鰒)이 많이 생산(生産)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加工)하여 한국(韓國) 나전칠기(螺鈿漆器) 생산지(生産地)의 대표적(代表的)인 곳이 되었다.

2. 목공예(木工藝)

1) 소목장(小木匠)

소목장(小木匠)은 주(主)로 나무를 가공(加工)하여 가정(家庭)에서 사용(使用)하는 장롱을 만드는 기술(技術)을 말하는데 가구장(家具匠)이라고도 한다. 통영(統營) 소목장(小木匠)은 1995 년(年) 1월(月)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55호(号)로 지정되었다.[2] 소목장(小木匠)으로 지정(指定)된 사람은 천상원(千相源)씨였다. 그가 사망(死亡)한 뒤 천(千)씨(氏)와 같이 작업(作業)을 해온 김금철(金金喆, 1954 년(年) 생(生))씨가 그 뒤를 이어서 가구(家具) 제작(製作)에 힘쓰고 있다.

김금철(金金喆) 가구장(家具匠)은 18 세(歲)부터 이웃 누나의 시아버지인 천상원 가구장(家具匠)에게서 가구(家具) 기술(技術)을 배우기 시작(始作)했다. 그 이후(以後) 현재(現在)

까지 35 년간(年間) 계속(繼續) 가구(家具)를 만들어 오고 있다. 김(金) 씨(氏)는 통영(統營) 시내(市內) 그의 작업실(作業室)이 있는 전통(傳統) 공예(工藝) 전시관(展示館)에 매일(每日) 아침 10 시(時) 무렵 출근(出勤)하여 밤 11 시(時) 경(傾)까지 작업(作業)을 한다.

이곳 통영(統營) 가구(家具)의 특징(特徵)은 한국(韓國) 전통(傳統) 가구(家具) 제작(製作) 방식(方式)대로 쇠못을 전혀 사용(使用)하지 않고 나무를 짜 맞추거나 아교(阿膠)를 사용(使用)하여 가구(家具)를 만든다.[3] 김(金) 씨(氏)가 만드는 가구(家具)는 옷장, 문갑(文匣), 경대(鏡臺) 등(等)이다. 가구(家具)의 앞면(面)은 색깔과 무늬가 다른 나무를 사용(使用)하여 여러 가지 기하학적(幾何學的)인 무늬를 만들고 옆면(面)이나 뒷면(面)은 오동나무를 톱니 모양을 잘라서 짜 맞춘다. 전면(前面) 나무 무늬는 직사각형(直四角形)을 중심(中心)으로 기하학적(幾何學的)인 형태(形態)를 만든다. 직사각형(直四角形)의 중앙(中央) 직사각형(直四角形) 부분(部分)은 귀목나무로 갈색(褐色)의 나이테 무늬를 배치(配置)하고 주변(周邊)의 경계선(境界線)의 흰색(色)은 비드나무를 사용(使用)하고, 검은색 선(線)은 먹감나무를 사용(使用)한다. 그리고 직사각형(直四角形)의 위 아래 부분(部分)은 무늬가 거의 없고 흰색을 띠는 배나무를 사용(使用)한다. 이들 앞면(面) 무늬의 뒤 쪽은 오동나무를 덧댄다. 이들 오동나무는 나무의 심재(心材) 부분(部分)에 풀칠을 해서 붙인다. 변재(邊材) 부분(部分)에 풀칠을 해서 붙이면 표면(表面)이 장롱(欌籠)의 안쪽으로 휘게 된다. 장롱(欌籠)의 양(兩) 옆 면(面)은 심재(心材)가 바깥쪽으로 향(向)하게 하고, 장롱의 바닥과 위 덮개 역시(亦是) 심재(心材)가 위쪽으로 향(向)하게 한다. 오동나무는 심재(心材) 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휘기 때문 장롱(欌籠)의 양(兩)옆과 윗판이 장롱(欌籠)의 바깥쪽으로 향(向)해서 부풀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면(全面) 무늬는 색(色)이 다른 나무를 가로 10 센티, 세로 50 센티 정도(程度)로 잘라 이것을 겹쳐 놓고 아교(阿膠)로 붙인 다음 상하(上下)에 가구재(家具材)를 덧대서 실로 묶어 8 개월(個月)에서 1 년(年) 정도(程度) 따뜻한 방에 보관(保管)한다. 그리고 이것을 고정(固定)시켜 놓고 톱으로 켠다. 장롱(欌籠)의 전면(前面)은 여러 직사각형(直四角形)의 무늬가 가로로 배열(配列)되어 있고, 뒷면(面)은 오동나무를 덧댄다. 그리고 앞면(面) 문(門) 주위(周圍)는 문(門)을 고정(固定)시키는 못을 막기 때문에 단단하고 질(質)이 좋은 적송(赤松)을 사용한다. 장롱(欌籠)의 정면(正面)에는 문(門)을 고정(固定)시키고 가장자리나 모서리 부분(部分)에 백동(白銅) 장식(裝飾)을 붙인다.

김(金) 씨(氏)는 1 년간(年間) 장롱(欌籠) 두 벌, 문갑(文匣) 두벌, 정도(程度)를 만든다고 한다. 장롱(欌籠)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대략(大略) 6 개월(個月)에서 8 개월(個月) 정도(程度) 걸린다. 장롱(欌籠) 한 벌의 가격(價格)은 1,300 만(万) 원(圓) 정도(程度)이고, 문갑(文匣) 한 벌은 300 만(万) 원(圓) 정도(程度)이다.

장롱(欌籠)은 상부(上部)와 하부(下部) 그리고 다리 부분(部分) 등(等) 먼저 세 부분(部分)을 따로 따로 만든 다음 하부(下部)와 다리를 붙여 두 부분(部分)으로 만든다. 다리부분(部分)은 다리와 서랍장으로 되어 있다. 붙이는 순서(順序)를 정리(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다리 부분(部分)에 딸린 서랍장의 내부(內部)를 깨끗이 닦고 먼지를 털어낸다. 그리고 이곳에 락스를 칠한다. 락스를 칠하는 이유(理由)는 재료(材料)인 오동나무에

좀이 슬지 않고 벌레 침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자주 여 닫는 서랍장이 쉽게 마모(磨耗)될 수 있기 때문에 마모(磨耗)를 막기 위해서이다.

(2) 다리 부분(部分) 위에 접합(接合)될 장롱(欌籠)의 하부(下部)의 밑 면(面)을 전기(電氣) 대패로 깨끗이 손질하고, 접합(接合)될 부분에 포르말린을 칠하여 아교(阿膠)가 잘 붙도록 한다.

(3) 왁스가 마른 다리 부분(部分)을 아교(阿膠)가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붙여질 부분(部分)에 아교(阿膠)를 칠한다. 아교(阿膠)는 큰 솥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면서 중탕(中湯)으로 녹인다.

(4) 아교(阿膠)가 칠해진 다리 부분(部分) 위에 장롱(欌籠)의 하부(下部)를 잘 맞추어 올려놓고 정확(正確)하게 붙인다.

(5) 뜨거운 물로 걸레를 빨아서 흘러내린 아교(阿膠)를 잘 닦아낸다.

장롱(欌籠)을 만들 때에는 대패 이외(理外)에 조선톱, 통, 끌 등(等) 50 여 가지 연장이 사용(使用)된다. 가장 많이 사용(使用)되는 연장은 조선 톱이다. 이 톱으로 여러 가지 문양(紋樣)을 둘로 갈라서 만들 때 이용한다. 이 톱은 한자(漢字)의 가로 왈(曰) 자(字) 형태(形態)로 되어있다. 맨 아래쪽에 톱날이 위치(位置)하는데 날이 45 도(度) 정도(程度) 기울어 고정(固定)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中間)에 대나무로 고정(固定)되어 있다. 그리고 맨 위는 노끈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톱을 사용(使用)할 때에는 맨 위쪽 노끈 사이에 쇄기를 꼬아 감아서 중간(中間) 대나무에 고정(固定)시켜서 사용(使用)한다. 장롱(欌籠)의 문(門)틀 위 아래에 가로대를 댄다. 가로대는 홈을 파두는데 전(前)에는 주(主)로 끌로 팠으나 언젠가부터 홈을 파는 대패로 판다. 이것을 홈을 파는 대패 혹은 사꾸리라고 한다. 대패를 만드는 목재(木材)는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다. 보통(普通) 붉가시나무나 흰 가시나무를 사용한다. 붉가시나무는 나이테가 없고 흰색(色)을 띤다. 그리고 흰 가시나무는 나이테가 있으며 갈색(褐色)을 띤다. 그리고 장롱(欌籠) 윗 부분(部分) 양(兩)쪽 끝 부분은 L 자형(字型)으로 만드는데 이 L 자(字)의 안쪽 부분(部分)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대서꾸리라고 하는 대패를 사용(使用)한다.

가구(家具)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使用)되는 나무의 구입(購入)은 주(主)로 목상(木商)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부탁(付託)하여 구입(購入)한다. 먼저 목상(木商)에게 필요(必要)한 나무의 종류(種類)와 크기를 말하고 주문(注文)한다. 목상(木商)이 여기 저기 수소문(搜所聞)하여 나무를 찾은 다음 가구장(家具匠)에게 연락(連絡)을 한다. 그러면 목상(木商)과 가구장(家具匠)이 직접(直接) 나무를 확인(確認)하여 나무의 상태(狀態)와 자신(自身)이 쓰고자 하는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한지 여부(與否)를 판단(判斷)한다. 이 때 가구장(家具匠)이 나무 구입(購入) 의사(意思)를 표시(標示)하면 나무의 나이에 따라 목상(木商)이 벌채(伐採) 허가(許可)를 시청(市廳) 등(等) 관공서(官公署)에서 받아 나무를 구입(購入)한다. 통영(統營) 지방(地方)에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하여 진주(眞州)나 전라도(全羅道) 지리산(智異山) 근처(近處)에서 구입(購入)하는 경우(境遇)가 많다고 한다. 가구(家具)의 좋은 문양(紋樣)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귀목나무를 많이 구입(購入)하여 이용(利用)한다. 그런데 귀목나무는 같은 종류(種類)인 포구나무와 구별(區別)해서 사용한다. 귀목나무는 나무의 껍질이 얇고 잘

썩지 않고 잎이 얇으며 나무에 기름기가 많고, 나무 내부(內部)는 갈색(褐色)을 띤다. 이와 비슷한 포구나무는 나무의 껍질과 잎이 귀목나무에 비교(比較)하여 두껍고 물에 젖으면 쉽게 부식(腐蝕)되고, 기름기가 없으며 흰색을 띠기 때문에 소반(小盤) 등을 만든다. 소반류(小盤類)는 가구(家具)와 반대(反對)로 거의 대부분(大部分) 옻칠(漆)을 하기 때문에 소반류(小盤類)를 만드는데 포구나무가 적합(適合)하다. 소목장(小木匠)이 만드는 가구(家具)는 좋은 색깔과 무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사용(使用)한다. 흰색을 얻기 위해서 버드나무, 갈색(褐色)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귀목나무, 검정색을 내기 위해서 먹감나무, 문(門) 주위(周圍)에 사용(使用)하는 적송(赤松), 테두리에 사용하는 배나무 등등(等等)이다.

제품(製品)의 판매(販賣) : 소목장(小木匠)이 만드는 가구(家具)는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多樣)한 나무를 사용(使用)하고 거의 대부분(大部分) 손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가(高價)에 거래(去來)되고 주문(注文)하여 납품(納品)까지 일년(一年) 정도(程度)가 걸린다. 보통(普通) 구입층(購入層)은 60 대(代) 이후(以後)의 중년(中年) 여성(女性)이다. 이들이 다섯 명(名)이나 열 명(名) 정도(程度)로 계(契)를 조직(組織)하여 매월(每月) 한 사람에게 하나 씩 구입(購入)해 주는 방식(方式)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대략(大略) 장롱(欌籠) 한 셑트에 천(天) 만(万) 원(圓)에서 천(千) 오(五) 백(百) 만(万) 원(圓) 정도(程度)라고 한다. 최근(最近) 경제(經濟) 사정(事情)이 좋지 않아 그다지 구입(購入)하지 않고 있으나 25 년(年) 전(前)에는 최 전성기였었다. 현재(現在) 전수(傳受) 조교(助敎)가 만든 장롱(欌籠)은 매년(每年) 한 점 정도(程度) 정부(政府)에서 구입(購入)해 준다.

장롱(欌籠)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로 수리(修理)가 필요(必要)하다. 특(特)히 장롱(欌籠)의 손잡이 부분(部分)은 부식(腐食)되거나 떨어지는 경우(境遇)가 많아서 손질이 필요(必要)하다. 그리고 다리 부분(部分)이 끊어지는 경우(境遇)도 있다. 이러한 수리(修理)도 소목장(小木匠)이 맡아서 해주는데 대략(大略) 15 일(日)에서 20 일(日) 정도(程度) 걸리며 수리(修理) 비용(費用)은 대략(大略) 50 만(万) 원(圓)에서 60 만(万) 원(圓) 정도(程度)라고 한다.

장롱(欌籠)을 만드는 중(中)에 연장이 부서지거나 도구(道具)가 나무 쓰레기와 함께 휩쓸려 버려 지는 경우(境遇)도 많다. 이러한 경우(境遇) 직접(直接)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境遇)도 있고, 작은 것은 가까운 통영(統營)의 철물점(鐵物店)에서 다시 구입(購入)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영(統營)은 철물점(鐵物店)이 소규모(小規模)이기 때문에 좀 멀지만 부산(釜山)에 가서 구입(購入)해 오는 경우(境遇)도 있다. 역시(亦是) 부산(釜山)은 시장(市場) 규모(規模)가 크고 방문객(訪問客)이 많기 때문에 선택(選擇)의 폭(幅)도 넓고 값도 비교적(比較的) 싼 편(便)이다.

현재(現在) 소목장(小木匠)이 만들고 있는 장롱(欌籠)이 언제부터 사용(使用)되어 왔는가 하는 점(点)에 대(對)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疑問)이 많고 확정(確定)된 정설(定說)이 없다. 김금철 씨(氏)가 확인(確認)할 수 있는 연대(年代)는 약(約) 70 년(年) 전(前)부터로 본다. 그러나 소목장(小木匠)이 자신(自身)의 선생(先生)에게서 배울 때 들은 말이나 자신(自身)의 제작(製作) 경험(經驗)과 수리(修理) 경험(經驗)에 비추어 약(約) 150 년(年)에서 200 년(年) 정도(程度) 전(前)부터 만들어오지 않았나한다. 다만 4 - 5 세기(世紀) 무렵 제작(製作)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高句麗) 벽화(壁畵)에 소반(小盤)이나 여러 장(樟)이 그려진 것을 보면 목기(木器) 가공(加工)의 역사(歷史)는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4]

2) 염장(簾匠)

대나무를 가공하여 생활(生活) 도구(道具)를 만드는 일은 죽세공(竹細工)이라고 하여 대나무 생산(生産)과 밀접(密接)하다. 한반도(韓半島)에서 가공용(加工用) 대나무 산지(産地)는 충청남도(忠淸南道) 태안반도(泰安半島)에서 강원도(江原道) 고성(固城)을 잇는 U 자형(字型)의 선(線)으로 구분(區分)된다. 이 선(線) 아래쪽에서 죽세공(竹細工)으로 사용(使用)되는 대나무가 재배(栽培)되며 주(主)로 전라남도(全羅南道) 담양(潭陽)이 예로부터 유명하다. 죽세공(竹細工)은 주(主)로 부채, 채죽상자(彩竹箱子), 담뱃대, 갓(양태) 등(等)을 만드는데 지금(只今)도 담양(潭陽)의 채죽상자(彩竹箱子)는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53호(号)로 지정(指定)되어있다.[5]

통영(統營)에서는 염장(簾匠)이 2001 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114호(号)로 지정(指定)되었다. 염장(簾匠)은 대나무를 가공(加工)하여 대발을 만드는 것이다. 염장(簾匠)으로 지정된 조대용(趙大用, 1950 년생) 선생(先生)은 4 대(代) 째 발을 만들고 있다. 지금(只今)도 조(趙) 씨(氏)는 발의 제작(製作)과 보전(保全)에 노력(努力)하고 있다. 선대(先代)들의 전언(傳言)에 의(依)하면 자신(自身)의 4 대(代) 조(祖) 조부(祖父)님은 조선(朝鮮) 철종(哲宗) 임금에게 발을 만들어 선물(膳物)로 드려 임금의 칭찬(稱讚)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3 대(代) 조부(祖父)님은 현(現) 통영군(統營郡) 광도면(廣島面)이 처음 생길 당시(當時) 초대(初代) 면장(面長) 직무대행(職務代行)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當時) 시간(時間)이 있을 때마다 발을 만들어 자신(自身)이 사용(使用)하거나 주위(周圍)에 선물(膳物)로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자신(自身)의 아버지는 공무원(公務員) 생활(生活)을 하면서 틈틈이 대를 손질하고 발을 만드셨는데 정년퇴직(停年退職) 후(後) 집중적(集中的)으로 발을 만드셨다. 이때는 1960 년대(年代) 말(末)로 급속(急速)한 경제성장기(經濟成長期) 이면서 전통적(傳統的)이 것에 대(對)한 향수(鄕愁)가 남아 있던 때이다. 당시(當時) 시대(時代) 상황(狀況)과 관련(關聯)하여 아버지는 여러 곳에서 주문(注文)을 받아 대발을 제작(製作)했다고 한다. 조대용(趙大用) 선생(先生)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이나 발을 짜는 일을 돕다가 군대(軍隊) 생활(生活)을 마친 뒤 25 세(歲)부터 본격적(本格的)으로 발을 만드는 일에 종사(從事)해왔다. 2001 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되기 전(前)까지는 집안의 농사일과 발 만드는 일을 병행(竝行)했으나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을 받은 다음부터는 대발을 짜는 일에 적극적(積極的)이다.

전통적(傳統的)인 한국(韓國) 가정(家庭)에서 대발은 생활(生活)의 필수품(必需品)이었다. 현대(現代)와 같은 에어컨이나 선풍기(扇風機)가 없던 시대(時代)에는 집안의 앞문과 뒷문을 열고 생활(生活)했다. 당시(當時)에는 문(門)을 열면 집안의 내부(內部) 사생활(私生活)이 보장(保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생활(生活)이 불편(不便)할 정도(程度)였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앞과 뒷문을 열고 대발을 걸어두면 바람도 시원하게 들어오고 사생활(私生活)도 보장(保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모두 집안에 대발을 설치(設置)했다. 그래서 마을 여러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自身)이 사용(使用)할 대발을 짜기도 하고 주위(周圍)에 발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탁(付託)하면 언제든지 쉽게 구(求)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전기(電氣), 전자(電子) 제품(製品)의 보급(普及)과 생활환경(生活環境)이 바뀌고 대발의 필요성(必要性)이 사라지면서 급속도(急速度)로 대발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는 철저(徹底)한 유교(儒敎) 사회(社會)였기 때문에 신분(身分)의 차이(差異)에 따라 서로의 얼굴을 직접(直接) 볼 수 없는 경우(境遇)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境遇) 서로 불편(不偏)한 관계(關係)를 해소(解消)하기 위(爲)해서 윗사람이 행차(行次)할 때에는 윗사람의 가마 주변(周邊)에 대발을 쳐서 가리고 다녔다고 한다. 특(特)히 전통(傳統) 혼례식(婚禮式) 때 신부(新婦)가 탄 가마의 주변(周邊)에는 대발을 쳐서 신부(新婦)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고 한다. 대발을 치면 대발에 가까운 내부(內部)에 있는 사람은 외부(外部)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외부(外部)에서는 내부(內部)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재(現在) 조 대용 선생(先生)이 제작(製作)하는 대발은 전(前)에 사용(使用)하는 목적(目的)과는 약간(若干) 달리 집안의 장식(裝飾)이나 디자인 등(等) 예술적(藝術的)인 목적(目的)을 위(爲)해서 사용(使用)된다.

대발은 대나무로 만든다. 이곳 통영(統營)은 한반도(韓半島)의 남해안(南海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연중(年中) 고온(高溫) 다습(多濕)하여 대나무의 성장(成長)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다. 대발에 사용(使用)되는 대나무는 대략(大略) 네 종류(種類)가 있다. 이들은 대발을 위해서 재배(栽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大部分) 통영(統營) 인근(隣近)의 해안(海岸)이나 무인도(無人島) 등(等)에서 채취(採取)한다고 한다. 대는 왕대, 대, 시누대(시리대, 해장죽; 海藏竹)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各各) 보통(普通) 푸른 색깔의 대와 검정색의 오죽(烏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발을 만들기 위(爲)해서는 먼저 대나무를 잘라서 그늘에 말린다. 보통(普通) 대나무의 채취(採取)는 겨울철 음력(陰曆) 12 월초(月初)에서 시작(始作)하여 그믐 무렵에 마친다. 보통(普通) 대나무는 자연(自然) 상태(狀態)로 방치(放置)하면 4 년(年) 정도(程度)면 죽는다. 그래서 대발에 사용될 좋은 대를 골라 베어내면 뒤이어 좋은 대가 다시 나기 시작한다. 베어 온 대는 자연(自然) 상태(狀態)에 그늘에서 말린다. 말리면서 속 부분(部分)과 겉껍질을 벗겨내고 일(一) 개월(個月) 정도(程度) 말린 다음, 다시 가늘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쇠판에 구멍을 뚫어 자른 대를 밀어내면서 당기면 원(願)하는 크기의 대나무 재료(材料)를 만들 수 있다. 대발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使用)하는 대나무는 그것을 채취(採取)하는 시기(時期)가 중요(重要)하다. 여름철 대나무가 성장(成長)하는 시기(時期)에 대나무를 베어 대발을 만들면 내부(內部)에 좀이 슬거나 벌레가 침범(侵犯)하여 대발이 쉽게 망가져 버리고 만다. 부득이 여름철 채취(採取)한 대나무를 재료(材料)로 사용(使用)할 경우(境遇)에는 대나무를 양잿물 녹인 물에 넣고 삶아서 말린 다음에 사용(使用)한다. 대발을 만들기 가장 좋은 재료(材料)는 음력(陰曆) 12 월(月)에 채취한 대나무이다. 보통(普通) 이 때 채취(採取)한 대나무를 사용(使用)하여 다음해 1 년간(年間) 대발을 만든다.

대발을 제작(製作)할 때는 짜는 사람이 앉아서 발틀을 앞에 가로 놓고 짠다. 발틀은 짜고자하는 대발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당(適當)한 것을 골라서 사용(使用)하거나 새로 맞게 제작(製作)하여 사용(使用)한다. 제작자(製作者)가 앉은 방바닥에서 발틀의 높이는 약 40 센티미터 정도(程度)이다. 발틀의 위쪽에는 긴 나무가 가로 놓여 있고 이곳에 실 여러 개(個)가 나무와 직각(直角)으로 걸쳐져 있다. 이 실의 길이와 폭(幅), 수(數) 등(等)도 짜고자 하는 대발의 규모(規模)에 따라서 다르다. 보통(普通) 실은 약(約) 360에서 190 센티미터 정도(程度)이고, 원래(元來) 면(綿) 실을 사용했으나 최근(最近) 자신(自身)은 무명실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실의 양(兩) 쪽에는 고드래가 있다. 실은 이 고드래에 감겨있다.

고드래는 원래(元來) 진흙으로 만들어 한지(韓紙)를 물에 불려 감싸서 사용(使用)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흙으로 만든 고드래는 크기가 크고 무겁지 않아서 제작(製作) 때 하나하나 손으로 눌러 주어야 했다. 현재(現在) 사용(使用)되는 고드래는 납으로 모래 시계(時計) 형태(形態)로 만들어 표면(表面)에 은박(銀箔) 종이로 감싸서 사용(使用)한다. 길이는 대략(大略) 3 센티미터 정도(程度)이다. 현재(現在) 사용(使用)되는 납 고드래는 무거워서 일부러 눌러줄 필요(必要)가 없고 부피가 작아서 일하기가 편하다고 한다.

대발은 원래(元來) 위에서 아래로 단순(單純)히 짠 다음 발 위에 엮은 칸 사이 폭(幅)에 맞추어 먹으로 수(壽), 복(福) 등(等) 한자(漢字)를 써서 장식(裝飾)했다. 그러나 조대용씨(氏)는 단순(單純)한 대발에 만족(滿足)하지 않고 대발을 짜면서 실을 조정(調定)하여 무늬를 직접(直接) 그려 넣는다. 단순(單純)히 짤 때는 고드래에 외줄 한 겹으로 대발을 짜지만 무늬를 짜 넣을 때에는 실 두 겹을 고드래에 감은 뒤 무늬를 위해서 이 실 두 가닥을 벌리거나 합치면서 구문(龜文)과 고문(罟文)을 만들고 물결 모양(模樣)으로 엮기도 한다.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時間)은 대발의 크기나 들어가는 무늬의 종류(種類)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본격적(本格的)인 예술성(藝術性)을 표현(表現)하여 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大略) 3 개월(個月) 정도(程度) 걸린다. 보통(普通) 단순(單純)한 수준(水準)으로 만들 때는 1 개월(個月) 정도(程度) 걸린다.

대발을 제작(製作)하는 염장(簾匠)은 원래(元來) 통영(統營)에 있었던 12 공방(工房)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유(理由)로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대발은 민간(民間)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기 때문에 굳이 12 공방(工房)에 넣어서까지 만들 필요(必要)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3) 소반장(小盤匠)

나무를 활용(活用)하여 온돌에서 생활(生活)할 때 주로 사용(使用)하는 밥상이나 주안상(酒案床) 등(等) 소반(小盤)을 만드는 기술(技術)을 소반장(小盤匠)이라고 한다. 소반장(小盤匠)은 1992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99호로 지정(指定)되었다.[6] 통영(統營)에서 소반(小盤)을 만드는 추용호(趙大用, 1950 년생) 씨(氏)는 경상남도(慶尙南道) 지정(指定)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4호로 지정(指定)되어 현재(現在)까지 소반(小盤)을 제작(製作)하고 있다.

한국(韓國) 사람들은 예로부터 온돌 방에서 생활(生活)해 왔다. 온돌 방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새끼를 꼬거나 바느질을 해왔다. 밥을 먹는 일 역시(亦是) 온돌 위에서 밥상 위에 밥과 반찬 등(等)을 올려놓고 식사(食事)를 해왔다. 언제부터 밥상이 사용(使用)되었는가는 확실(確實)하지 않다. 다만 조선(朝鮮) 시대(時代) 임금의 밥상과 반찬(飯饌)의 수(數) 등(等)이 정(定)해진 기록(紀錄)과 임금이 신하(臣下)나 국가(國家)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밥상을 하사(下賜)했다는 기록(紀錄) 등(等)으로 보아 밥상의 사용(使用) 시기(時期)는 대략(大略) 조선(朝鮮) 중기(中期) 이후(以後)로 보고 있으나 고구려(高句麗) 벽화(壁畵)에 현재(現在)와 비슷한 모양(模樣)의 소반(小盤)이 등장(登場)하는 것으로 보아 5 - 6 세기(世紀) 이전(以前)부터 사용(使用)해 온 것으로 보인다.[7] 그리고 밥상 즉(卽) 소반(小盤)을 만드는 것은 나무를 재료(材料)로 사용(使用)하여 만든다는 점(点)에서 품질(品質) 좋은 철기(鐵器) 도구(道具)의

제작(製作) 및 사용(使用) 역시(亦是) 조선(朝鮮) 중기(中期)부터 대량(大量) 생산(生産)이 가능(可能)해지고 일반화(一般化)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밥상을 만드는 곳은 예로부터 경기도(京畿道) 해주(海州)의 해주반(海州盤),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의 나주반(羅州盤), 경상도(慶尙道) 통영(統營)의 통영반(統營盤)이 유명(有名)했다고 한다. 현재(現在) 일반(一般) 가정(家庭)에서는 거의 대부분(大部分) 서구식(西歐式) 테이블을 사용(使用)하기 때문에 밥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도 밥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시(當時) 밥상이나 그밖의 생활(生活) 기구(器具)를 만들던 기술(技術)과 도구(道具)를 이용(利用)하여 여러 가지 작품(作品)을 제작(製作)하고 있다.

경상남도(慶尙南道) 지정(指定)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4호, 통영(統營) 소반(小盤), 추용호씨는 아버지(추 곰동이) 때부터 소목장(小木匠)으로 여러 가지 생활(生活) 도구(道具)를 만들어왔다. 추용호 씨의 부친(父親) 추 곰동이씨는 소목장(小木匠)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 유명(有名)한 분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全國) 순회(巡廻)를 하면서 통영반(統營盤)을 비롯한 밥상의 제작(製作)에 힘써왔다고 한다. 그런데 1974 년(年) 갑자기 부친(父親)이 별세(別世)하여 추용호 씨가 그 뒤를 이어 소목장(小木匠)의 일에 종사(從事)해오고 있다. 추용호 씨는 아버지가 직접(直接) 만들어 사용했던 연장들을 지금(只今)도 거의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것들은 사용(使用) 목적(目的)이나 나무의 재질(材質)에 따라 조선(朝鮮)의 전통적(傳統的)인 방식(方式)으로 사용(使用)되던 것들이다.

통영반(統營盤)의 재료(材料)는 팽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等)이 사용(使用)된다. 팽나무나 느티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무거운 특징(特徵)이 있다. 은행나무는 가볍고 물이나 벌레에 강(强)하지만 무늬가 없고 단순(單純)하다. 이밖에 소나무(육송), 버드나무 등(等)도 사용(使用)되었다. 밥상, 소반(小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밥이나 반찬을 올려놓는 천판(天板)을 들 수 있다. 천판(天板)은 나무 한 장으로 만드는 경우(境遇)도 있지만 큰 나무가 귀(貴)하기 때문에 나무 판자(板子) 여러 장을 옆으로 붙여서 사용(使用)하기도 한다. 천판(天板)은 둥근 모양(模樣), 사각(四角), 12 각(角) 등(等)이 있는데 둥근 모양(模樣)은 우주(宇宙), 하늘을 상징(象徵)하고, 사각(四角)은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四方)을 상징(象徵)하고, 12 각(角)은 12 지(支), 12 시간(時間)을 상징(象徵)한다. 다음 천판(天板) 바로 아래 부분(部分)을 중대 또는 풍혈(風穴)이라고 한다. 이곳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거나 깎아서 넣는다. 무늬는 학(鶴)의 날개, 인당초 등(等)이 있다. 이곳 천판(天板)은 하늘 즉 우주(宇宙)를 받치는 부분(部分)으로 하늘에 뜬 구름 즉 운각(雲脚)을 상징(象徵)한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部分)을 하장(下裝) 또는 족대(足臺)라고 하는데 땅을 상징(象徵)한다고 한다. 이 하장(下裝)은 상(床)의 규모(規模)나 크기에 따라서 길이나 폭(幅)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다리는 개의 다리, 호랑이의 다리 등(等)을 모방(模倣)한다고 해서 개다리소반(小盤) 즉 구족반(狗足盤), 호랑이 다리 즉 호족반(虎足盤) 등(等)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特)히 통영(統營) 지방(地方)에서는 고양이 다리(앵고다리 ; 통영 방언)라는 말도 있어왔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호랑이 다리의 별칭(別稱)이 아닌가 한다.

밥상은 원래(元來) 1 인용(人用)이 기준(基準)이었고 그것이 가장 일반적(一般的)이었다고 본다. 궁중(宮中)에서 벌이던 연회(宴會)나 통영(統營)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 관련(關聯) 행사(行事)에서도 잔치 때에는 참가자(參加者)들이 모두 일인상(一人床)을 받아 식사(食事)를

하였다. 주안상(酒案床)이나 다과상(茶菓床)은 2 인상(人床)이 많다. 특(特)히 천판(天板)이 둥근 것은 도리판이라고 했다. 도리판은 둥근다는 뜻과 두 사람이 사용하는 판이라는 둘이판에서 왔다는 말도 있다. 이밖에 3 인상(人床), 4 인상(人床), 그리고 연회(宴會)에서 사용되는 교자상(交子床) 등(等)이 있다.[8]

추용호 씨(氏)는 현재(現在)에도 아버지 때부터 사용(使用)하던 도구(道具)를 이용(利用)하여 지금(只今)도 통영반(統營盤)을 만들고 있다. 이 연장들은 아버지가 직접(直接) 만들거나 대장간에 칼날을 주문(注文) 제작(製作)하여 사용(使用)해 왔다고 한다. 연장이 낡아지거나 사용(使用)할 수 없게 되면 지금(只今)도 직접(直接) 만들어서 사용(使用)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들어 사용(使用)하던 연장 가운데 10 여(余) 가지는 자신(自身)의 능력(能力)으로도 무지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4) 나전칠기(螺鈿漆器)

옻 칠(漆)은 처음 중국(中國)에서 시작(始作)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중국(中國)에서는 옻조각(彫刻)으로 발전(發展)하였다. 일본(日本)에서 옻칠이 유입(流入)되어 금박(金箔)과 결합하거나 칠(漆) 그림으로 발전(發展)하였다.[9] 이에 비(比)하여 한국(韓國)에서는 옻칠이 나전(螺鈿)과 결합하여 나전칠기(螺鈿漆器)로 발전(發展)하였다. 그 이유(理由)에 대(對)해서 여러 가지 설(說)이 많이 있다. 다만 한국(韓國)의 옻칠은 통영(統營) 지방(地方)을 중심(中心)으로 전(傳)해져 통영(統營)의 해안(海岸) 지방(地方)에서 생산(生産)되는 전복(全鰒)의 전복껍질과 결합(結合)된 것으로 본다. 한반도(韓半島)에 옻칠이 처음 전(傳)해진 것은 고려(高麗) 때부터라고 한다. 당시(當時)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고려(高麗)의 옻칠(漆)이 유명(有名)하여 당시(當時) 고려(高麗)를 찾은 외국(外國) 손님들에게도 옻칠 제품(製品)을 선물(膳物)했다고 한다.

통영(統營) 지방(地方)에 전승(傳承)되는 나전칠기장(螺鈿漆器匠)은 처음 1979 년(年) 송주안(宋周安)이 처음 끊음질로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0호로 지정(指定)되었으나 그가 1981 년(年) 7 월(月) 사망(死亡)하자 그 뒤를 이어 송방웅(宋芳雄)이 1990년 10 월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을 받아 현재(現在)까지 나전(螺鈿) 제작(製作)에 힘을 쏟고 있다. 나전(螺鈿)은 제작(製作) 과정(科程)이 복잡(複雜)하고 길기 때문에 기능(技能)을 줄음질, 칠장, 끊음질 등 셋으로 나눠 문화재(文化財)를 지정(指定)하고 있다.[10]

나전(螺鈿)은 목기(木器)나 나무 장롱(欌籠)을 만들어 먼저 옻칠을 하고 그 위에 나전(螺鈿)을 붙이고 다시 옻칠을 하여 마감한다. 간단(簡單)히 삼 단계(段階)를 거치지만 다시 자세(仔細)히 살펴보면 각 단계(段階)마다 여러 가지 작업(作業)이 덧붙여져 대략(大略) 28 에서 30 가지의 공정(工程)을 거친다. 나전(螺鈿) 역시(亦是) 전복 껍질에서 채취(採取)하여 붙이거나 끊어서 목표(目標)하는 디자인에 적합(適合)한 형태(形態)로 재가공(再加工)하여 사용(使用)한다.

나무로 만든 가구(家具)는 나무의 유기적(有機的)인 성질(性質)과 자연(自然) 환경(環境) 가운데 온습도(溫濕度)의 변화(變化)에 따라서 변형(變形)되거나 뒤틀리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의 약점(弱點)을 보완(補完)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가구(家具)의 나무 바탕에 종이를 붙이고 풀칠을 하고 나전(螺鈿)을 붙이고 다시 갈아내고 하는 공정(工程)을 반복(反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전(螺鈿) 장롱(欌籠)은 나무 장롱에 비(比)하여 값은 두 세 배(培) 비싸지만 수명(壽命)은 그 이상(以上) 유지(有志)된다. 통영(統營)에서 생산(生産)된 소반(小盤)은 다른 지역(地域)과 달리 일부(一部) 소반(小盤)에도 나전(螺鈿)을 칠하여 통영반(統營盤)의 특징(特徵)이나 개성(個性)을 확실(確實)히 표현(表現)하기도 했다.[11]

3. 마 무 리

지금(只今)까지 통영(統營) 지방(地方)에 전승(傳承)되는 목공예품(木工藝品)을 중심(中心)으로 가구(家具)를 만드는 소목장(小木匠), 대나무를 가공(加工)하여 대발을 만드는 염장(簾匠), 소반(小盤)을 소반장(小盤匠), 나전칠기(螺鈿漆器) 등(等)에 대(對)해서 간략(簡略)히 살펴보았다. 이들은 과거(過去) 조선(朝鮮) 시대(時代)부터 있었던 12 공방(工房)의 기능(技能)을 지역(地域) 사회(社會)에서 유지(維持), 발전(發展)시켜온 것이다. 이렇게 유지(維持) 발전(發展)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地域) 사회(社會)의 환경(環境)에 맞는 재료(材料)를 구(求)하기 쉽고, 지역(地域) 주민(住民)들이 애용(愛用)해 왔기 때문에 가능(可能)했으리라고 본다. 현재(現在) 전승(傳承)되고 있는 이러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언제까지 전승(傳承)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문화(文化) 유산(遺産)이라는 인식(認識)에서 국가(國家)와 지방(地方) 단체(團體)가 적극적(積極的)으로 보호(保護) 육성(育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程度) 보존(保存)이나 유지(維持)가 가능(可能)하리라고 본다.

통영(統營) 지방(地方)에는 목공예(木工藝) 관련(關聯)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뿐만 아니라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승전무(勝戰舞), 남해안별신(南海岸別神)굿 등(等)도 전(傳)해지고 있다. 이들에 대(對)해서 간략(簡略)히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는 예로부터 통영(統營) 지방(地方)에서는 전(傳)해오는 오광대(五廣大)놀이다.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는 1964 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6호로 지정(指定)되었다.[12] 주변(周邊) 고성(固城)에도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중요무형문화재 제 7 호)가 있으나 통영(統營) 나름의 개성(個性)을 유지(維持)하면서 전승(傳承)되고 있다. 오광대(五廣大) 놀이의 주요(主要) 내용(內容)이 양반(兩班)의 피폐(疲弊)한 생활(生活)에 대(對)한 풍자(諷刺)와 야유(揶揄)를 중심(中心)으로 하고 있다. 극적(劇的) 전개(展開)를 높이고 놀이의 과정(過程)과 관객(觀客)의 흥(興)을 위(爲)해서 양반(兩班)과 취발(翠髮)이의 대화(對話)를 통(通)하여 양반(兩班)의 허구적(虛構的)인 면(面)을 고발(告發)하고 희극화(喜劇化)한다. 이러한 과정(過程)에서 특(特)히 통영(統營) 오광대(五廣大)는 고성(固城) 오광대(五廣大)에 비교(比較)하여 서민(庶民) 중심(中心)의 성격(性格)과 특징(特徵)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부분(部分)에서 양반(兩班)은 취발이의 고발(告發)이나 지적(指摘)에 수긍(首肯)하고 사죄(謝罪)를 구(求)한다. 이에 비(比)하여 고성(固城) 오광대(五廣大)는 서민(庶民)의 공격(攻擊)에 대(對)해서 양반(兩班)이 반발(反撥)하거나 노여워하여 서민(庶民)을 압도(壓倒)하며 양반춤 등(等)에서 기교적(技巧的)으로 양반(兩班)의 예술성(藝術性)을 과시(誇示)하는 경향(傾向)이 강(强)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한국(韓國) 탈춤이 신앙적(信仰的)인 특징(特徵)이 강(强)하다면 통영(統營) 오광대(五廣大)는 오락적(娛樂的)인 성격(性格)이 강(强)한 것도 특징(特徵) 가운데 하나이다.[13]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1호 승전무(勝戰舞)는 통영(統營)에 있던 통제영(統制營)에 소속(所屬)된 기생청(妓生廳)의 관기(官妓)가 추었던 춤으로 무고(舞鼓)와 검무(劍舞)가 합설(合設) 연희(演戲)되었던 것을 통칭(統稱)한 것이다. 통영(統營) 승전무(勝戰舞)는 1968 년 12 월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1호로 지정(指定)되어 현재(現在)에 이르고 있다.[14]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當時)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장수(將帥)와 졸병(卒兵)들의 노고(勞苦)를 위로(慰勞)하고 사기(士氣)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戰爭)에 이긴 후(後)에는 축하(祝賀)의 의미(意味)로 이 춤을 추었다고 한다.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82-라호 남해안(南海岸) 별신굿은 1987 년 7 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되었다.[15] 남해안별신(南海岸別神)굿은 통영(統營), 거제(巨濟)를 중심(中心)으로 섬 지역(地域)에서 풍어(豊漁)와 해상(海上) 안전(安全)을 목적(目的)으로 행(行)해져 온 풍어(豊漁)굿이다. 굿은 주(主)로 마을 사람들의 참여(參與)와 협조(協助)로 세습무(世襲巫)가 중심(中心)이 되어 진행(進行)되며 보통(普通) 무당(巫堂) 두 명(名) 정도(程度)가 이를 안에 굿을 끝낸다.[16]

이 밖에도 통영(統營)에는 두석장(豆錫匠)이라고 하여 금속(金屬)을 가공(加工)하여 생활(生活) 용구(用具)를 만드는 장인(匠人)도 1980 년 11 월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64호로 지정(指定)되어 있다.[17] 두석장(豆錫匠)은 장롱(欌籠)의 손잡이나 나전칠기(螺鈿漆器)로 제작(製作)한 각종(各種) 목공예품(木工藝品)의 장신구(裝身具)를 제작(製作)하는 기능(技能)을 말한다. 그밖에 승전무(勝戰舞)에서 사용(使用)하는 칼이나 칼의 손잡이 등(等)도 두석장(豆錫匠)이 만든다.

지금(只今)까지 살펴본 통영(統營) 지역(地域)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개별적(個別的)으로 존재(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相互) 의존적(依存的)이고 상호(相互) 협조(協助)하면서 전승(傳承), 유지(維持), 발전(發展)시켜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영(統營)에 이러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존속(存續)할 수 있었던 이유(理由)는 앞에서도 언급(言及)한 것처럼 조선시대(朝鮮時代) 삼군(三軍) 통제사(統制司) 통영(統營)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始作)되었다. 그 뒤 통제사(統制司)는 다른 곳에 옮겨갔지만 그 기술(技術)이 민간(民間)에 전승(傳承)되고 주변(周邊) 자연(自然) 환경(環境)에서 품질(品質) 좋은 재료(材料)를 공급(供給)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現在)까지 유지(維持) 전승(傳承)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글은 2007년(年) 8 월(月), 2008 년(年) 8 월(月) 현지(現地) 조사(調査)를 바탕으로 쓴 것임.

注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pp. 242-255.
2) 문화재관리국, 『1997 년도 중요무형문화재현황』 1997. 7, p. 54.
3)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2006, 7 쇄, p. 9.
4) 김삼대자, 앞의 책, p. 65.
5) 국립문화재연구소, 『채상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2004, pp. 2-16.
6)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80.
7) 나선화, 『소반』 대원사, 2002, 6 쇄, pp. 52-56.

8) 나선화, 앞의 책, p. 92-96.
9) 이칠룡 편저, 『漆工硏究』, 미진사, 1984, p. 325.
10)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24.
11) 나선화 앞의 책, p. 13.
12) 박진태, 『통영오광대-중요무형문화제 제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pp. 51-53.
13) 정상박, 「통영오광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pp. 253-255.
14) 엄옥자, 『승전무 - 중요무형문화재 제 21 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p. 9, 81.
15)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71.
16)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해안 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1998, pp. 7-21.
17)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58.

참고문헌(參考文獻)

國立文化財硏究所, 『南海岸 별신굿 重要無形文化財 제82-라호』, 1998,
國立文化財硏究所, 『彩箱匠』 重要無形文化財 제53호, 2004,
國立民俗博物館, 『木家具』, 대원사, 2004.
김삼대자, 『傳統 木家具』 대원사, 2006, 7 쇄.
나선화, 『소반』 대원사, 2002, 6 쇄.
文化財管理局, 『1997 년도 重要無形文化財現況』 1997. 7.
박영규, 김동우, 『목칠공예』, 솔, 1990.
박진태, 『통영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엄옥자, 『승전무 - 중요무형문화재 제 21 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이칠룡 편저, 『漆工硏究』, 미진사,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